

헌법재판연구원
제12회 국제학술심포지엄

축 사



2023. 8. 31.

헌법재판소장 유남석

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헌법재판연구원은 2012년부터 매년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체계’를 논의하는 열두 번째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의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뜻깊은 자리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오늘 발제 및 토론, 사회를 맡아 주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한국과 시간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멀리에서 귀한 시간을 내어 참가해 주신 란지타 드 실바(Rangita de Silva de Alwis) 교수님과 우샤 탄동(Usha Tandon) 교수님, 그리고 신옥주 교수님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훌륭하게 준비해주신 이현환 헌법재판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 및 헌법재판에 대한 중장기적·체계적 연구와 헌법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2011년에 설립된 연구기관입니다. 그 동안 헌법재판연구원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여러 가지 헌법적 쟁점에 대한 선도적이고 심도 있는 연구를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도 훌륭히 수행해 왔습니다. 매년 개최하고 있는 국제학술심포지엄도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서 국내외 석학들의 깊은 통찰과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되어 왔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작년에 ‘세계입헌주의와 인권보장체계’라는 주제로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심각한

기후변화와 비약적 기술진보 및 세계화 현상은, 세계 각국이 국경과 지역을 넘어 초국가적으로 연대하여 인권 보장과 법치주의, 민주주의와 같은 범인류적인 보편적 가치를 구현해 가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연대의 일환으로 각 지역별로 인권재판소 등 다양한 인권보장체계가 구축되어 있으나, 유럽이나 미주, 아프리카 지역에 비하여 아시아 지역은 여전히 효과적인 지역 인권보장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하여 아시아 헌법재판기관들이 아시아 지역에서 헌법재판을 통하여 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현하고자 2010년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Association of Asian Constitutional Courts and Equivalent Institutions, AACC)을 설립하였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10개국을 포함하는 아세안 회원국 사이의 인권의 보호·증진과 지역적 협력을 위한 자문 기관

으로 2009년 아세안 정부간 인권위원회(ASEAN Inter-Government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AICHR)가 출범하였으며, 2010년 아세안 여성·아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위원회(ASEAN Commissio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s of Women and Children, ACWC)가 발족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아시아, 남아시아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큰 대륙이며, 각 지역마다 사회적·문화적·정치적·종교적으로 다양한 인구가 상존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 전반의 인권 보호 및 실행을 위한 법적 제도 수립과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적 인권보장체계의 구축은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최첨단 디지털 시대는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온라인 상 새로운 형태의 성착취 및 성폭력 문제를 낳고 있고, 국제결혼 및 이주노동자 등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가정의 여성과 아동의 인권 및 복지 수준의 취약성도 사회적으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또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가운데 영아와 모성의 보호는 새롭게 접근하여 풀어야 하는 이 시대의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아시아 지역의 문화적·사회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지역 내 각 국가 또는 인권보장기관들이 함께 연대하여 대화하고 경험을 공유하며 그 해법을 찾아야 하는 공통의 인권 문제들입니다. 이를 위한 아시아 지역 내 국가 간 협력 및 상호 지원을 위한 인권 보장 체계의 마련이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체계’를 논하는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에서 란지타 드 실바(Rangita de Silva de Alwis) 교수님은 디지털 젠더 폭력의 심각성을, 우샤 탄동(Usha Tandon) 교수님은 아시아 지역의 인권 침해 상황과 함께 아시아 인권 보장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신옥주 교수님은 영아와 산모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도에 대해 말씀하실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통하여 아시아 지역의 인권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초석이 다져지길 바랍니다. 특히 역사적·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인 여성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응방안으로서 헌법적 가치와 원리 구현에 대한 깊은 통찰과 고견을 나누고, 아시아 인권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협력과 연대에 대한 인식의 지평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국제학술심포지엄은 코로나 사태 이후 처음으로 대면회의 방식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디지털 시대가 초래한 여성과 아동에 대한 새로운 인권 침해 문제 등 아시아 지역이 공통으로 직면한 여러 과제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유의미한 연구 교류의 장이 펼쳐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오늘 국제학술심포지엄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헌법재판연구원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자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3. 8. 31.

헌법재판소장 유남석